

白碑情神을 드높이자

IPAK/자문위원 南石 박종현

白 碑는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박수량(朴守良) 선생의 묘앞에 서 있는 碑石이다.

박수량은 38년간 벼슬을 하면서 경상에까지 이르렀으나 변변한 집 하나 갖지 못했던 청백리로서 위로는 임금님과 아래로는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서 그의 묘비가 증명하고 있다. 박수량이 죽자 그의 청렴결백한 행동에 감동한 명종은 어명을 내려 서해바다에서 돌을 골라 그의 뜻을 감동스럽도록 기록하고 싶은 충동을 받아 직접 비문을 쓰기로 결심하고 비문을 작성하였으나 마음에 안 들자 버리고 다시 작성하였으나 마땅치 않아 “박수량의 淸德을 알면서 비에다가 새삼스럽게 결백했던 생활상을 쓴다는 것은 오히려 그를 잘못 아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니 비에다가 한자도 쓰지 말고 비문 없이 그대로 세우라. 그리고 그 淸德을 표시하여 백비(白碑)라고 하라”라고 하였다. 이것이 백비다.

우리가 이도(吏道)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목민지도(牧民之道)의 윤리를 생각하게 된다. 관리(官吏)는 백성에

게 봉사하는 것이 직업이므로 선공후사의 정신이 투철해야 하고, 언행이 공정하고 애국적이어야 하며, 자기를 희생해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분명히 청백리 됨을 자랑으로 여기고 선비로서의 긍지와 몸가짐을 엄하게 스스로 다스렸음을 본다. 그러나 세상이 변천을 거듭해 오면서 근래 공직자들은 본연의 자세를 逸脫하여 세인의 규탄이 되어 왔음을 보게된다.

박수량(1491-1554)의 자는 군수(君逵), 호는 아곡(莪谷), 시호는 정혜(貞惠)다.

선생은 성종 22년 아버지 박종원(朴宗元)과 어머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명문 태인박씨의 후예이다.

원래 본관이 밀성이었으나 선생의 육대조인 박승봉(朴承泰)이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반대하고 전북 태인에 낙향하여 조선에 입조를 반대하였으며 그의 손자 대호군 연생(衍生)은 단종이 물러나고 세조가 등극하면서 공신으로 추대하자 조부인 (승봉)承泰의 行義淸心(義를 行하려면 먼저 마음을 맑게 하라)의 유언에 따라 장성으로 낙향하면서 본관 밀성(密城)을 태인(泰仁)으로 개관하였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총명 강직하고 지혜가 남달리 뛰어나 神童이란 별명을 듣기도 하였다. 일찍이 동향의 김개(金漑)에게 글을 배웠는데 문장이 뛰어나 12세에 망해부(望海賦)을 지었고 부장 백일장에서는 과취루부(把聚樓賦)를 지

어 장원을 하였다.

1513년에 진사,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공주주학(廣州州學)으로 관계에 발을 들여놓고 목민의 도(牧民之道)를 다하여 “백성을 형으로만 다스리기보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다스리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을 목민의 기저로 삼고 선정을 다 하였다. 그 후 호(戶), 공(工), 예(禮), 형조(刑曹)참관을 지내고, 명종원년 상호군(上護軍)으로 있을 때 의정부, 이조, 예조 합동으로 청백리로 뽑혀 초자(超資)를 받아 형조, 호조판서, 좌참찬이 되었으며 함경도, 전라도 관찰사, 한성판윤을 지내고, 중종9년(1554)에 향년 64를 일기로 돌아가시니 조정에서는 2일간 조회를 파하고 예관을 보내어 예장(국장)을 하도록 명하였다.

박수량은 뇌물이나 부정과 타협하거나 가까이 한일이 없었으며 선생이 청백한 인물이라는 것은 다음 기록들에서 명백히 알 수 있다.

명종은 어찰(御札)을 보내 「경을 만난 지 오래인데 부엌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날이 반달이 넘는다면서...내 동원(東園)에 처음 익은 벼 수말을 보내니 물량은 적으나 의가 중하지 아니한가?」 하였고, 선생은 임종에 이르러 「사생(死生)이 천운(天運)인데.....잃은 것 없이 끝마치니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라고 시를 읊었으며, 경포대 시에 「반반한 거울바다에,.....속마음도 비춘다면 누대 위에 오를 사람이 몇이나 될까?」 라고 하였다.

신숙주의 손자 문장가 신광한(申光漢:1484-1555)은 박수량이 돌아가자 애석히 여겨 만시(晩時)를 남겼는데 「관직에 있을 때, 백성들의 기대가 얼마나 높았던가! 이후 사람들은 ‘지(智), 인(仁), 용(勇)의 삼덕(三德)이 방치될 것을 슬퍼하며 선비들은 예(禮), 의(義), 엄(廉), 치(恥)가 세상에서 희미해질 것을 탄식하네, 살고 있는 집도 빌린 집이고 묘지도 직접 보아 둔 터라면서 이 모두가 평생동안 “위국(爲國)” 두자 만을 생각하였기 때문 아닌가?」라고 읊었다. 이와 같이 박수량은 지나치다 할 만큼 청백하였다.

명종은 어사를 보내 그의 생활을 알아보도록 하였는데 “박수량은 벼슬에 오른지 38년간이나 되어 지위가 경상에 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서가래 있는 집 마저 없었다.”라는 보고에 접하고 깜짝 놀라 하남 골 양지 바른 곳에 99간의 집을 지어 주고 「청백당(清白堂)」이라 이름지어 주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죽거든 고향에다 장사지내되 묘도 크게 쓰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 것이며 시호도 청하지 말라”(我死愼勿爲請諡人碑)고 유언하였다. 역시 그의 청백 정신은 생전의 행동이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다. 장사를 지내려 하였으나 집에는 쌀 한 톨도 없었다. 우리 역사상 기록이 없는 비석이란 없다. 이것이 아무런 기록도 없이 외로이 서있는 유명한 백비다.

인간의 이상인 평화공존 즉 정당한 인간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선(善) 행위의 원동력은 “정(情)”이요 깨끗한 마음이다. 이는 아무에게도 병폐를 끼쳐 주지 않은 어떠한 탁한 것이라도 맑게 해주는 필연성이다. 깨끗한 마음이란 남을 존중하는 마음, 남을 해치지 않은 마음, 남을 돕는 마음이다.

“정”은 선성(善性)에서 비롯되는 표상이다. 인간애를 기반으로 선성은 仁, 義, 禮, 知, 慈悲 또는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교훈이다. 결국 인간의 자기실현과 평화공존이란 가장 고귀한 인간의 지혜다.

선생은 수신제가 후 치국이라는 대학의 도를 행동의 기반으로 삼고 자기자신과 자기 주변을 먼저 생각하였다. 이 선비정신은 어디까지나 선생의 고매한 인격에서 우러나온 정신이며 남기고 간 清白思想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

첫째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이다”. 부정, 불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를 철두철미하게 배격하고,

둘째 “견지경절(堅持勁節)의 정신이다”. 어떠한 고경(苦境), 질곡속에서도 준직, 정결, 고매, 영혜한 인간정신이 갖는 무한한 강인성이다.

셋째 “청렴결백(清廉潔白)의 정신이다”. 아무리 곤궁하고 긴박한 생계에 이르러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부정한 남의 도움을 끝까지 받지 않았고 안빈락도 했던 그 고결한

생활철학은 어떠한 악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았던 금석 같은 드높은 성품에서 빚어진 것이다.

우리는 선생의 이러한 생활태도와 그 정신을 이어 받아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충실히 행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태도로 분수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여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조상들이 남기고 간 清白思想을 우리의 것으로 승화시켜 국민정신의 기반으로 삼아야 하겠다. 전남 장성군에서는 백비모형을 군청입구에 세우고 출입하는 공직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여 백비정신을 선양하고 있다.